



개불알풀꽃의 대왕님



이 정 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수필가

그 작고 여린 풀꽃에 왜 그 다지도 천한 이름이 붙었는지, 사진이나 풀밭에서 개불알풀꽃을 볼 때면 난 늘 아쉽다 못해 안쓰러웠다. 야생란 중에서 꽃이 제일 크고 탐스러워 복주머니꽃이라고도 불리우는 적자색 개불알꽃과는 또 달라서, 땅바닥을 기다시피 하는 낮은 줄기에서 지름이 겨우 3~4mm 밖에 안 되는 자잘한 꽃들이 피어나니 크고 화려한 이름은 붙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꽃잎의 푸른 빛을 봐서 아기별꽃이라는 이름이라도 붙여 줄 수 있으련만.

한데, 뜻밖에도 오랫동안 가져온 그 안쓰러움이 일시에 가시어지는 장소가 꼭 한 곳 있었다. 오히려 '작은 풀꽃들이, 너희는 참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 이곳에 피어 있구나'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곳이, 어리석기 그지없는—개불알풀꽃이라는 천한 이름이 붙은 그 꽃을 닮았다 해도 괜찮을 성 싶은—백성들을 위해 자기 영

혼의 안식을 버린 한 대왕님의 무덤가라서였을까.

경주에서 동쪽으로 33km 떨어진 봉길리 앞바다에 자리한 대왕암을 찾은 것은 지난해 2월, 국민학교 5학년이던 아이가 봄방학을 한 뒤였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나로서도 벌써 두 번이나 다녀온 그곳을 찾은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경주에서 몇 년 근무를 한 남편은,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터라 뒤늦게 혼자 생활을 했던 어려움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아서인지, 기회만 닿으면 그 도시에 가고파 했다.

그것은 주말마다 오르내려야 했던 내게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수학여행길에 한 번 다녀왔을 뿐인 그곳을 마치 고향처럼 간직하게 됐다. 거기에는, 방학이면 내려가 며칠씩 머물며 여러 차례 돌아보곤 한 유적지들이 눈에 익은 장소가 될 만큼 가까워진 탓도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인

상을 남긴 곳이 해중왕릉이었는데, 1967년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조사단에 의해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왕의 수중릉으로 밝혀진 때부터 강하게 마음이 끌렸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경주에 있게 된 첫해 겨울 별려서 찾아갔을 때는 가슴이 마구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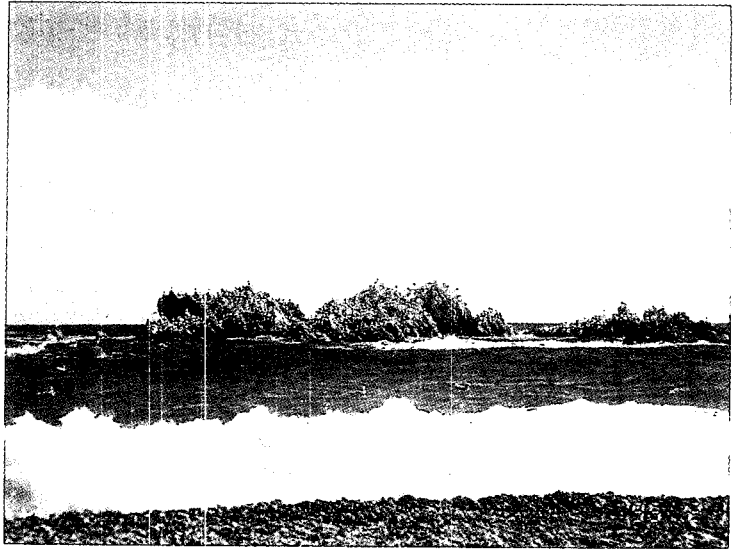
그 날따라 기온이 떨어져서 몹시 추운데다가, 길고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으로 불어 오는 바람은 왜 그렇게도 센지. 출렁이는 질푸른 바닷물이 와르릉 소리를 내며 흰 말의 군단이 되어 기세등등하게 밀려오는대는 저절로 뒷걸음질이 처졌다. 그 너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닷가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포말을 일으키며 솟구친 바닷물이 그대로 빠죽빠죽한 돌이 되어 굳은 듯한 바위섬이었다.

면적이 19.8km² 정도 되는 그 내부에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십자수로(十字水路)가 있고, 그 가

운데 생긴 수증못에 길이 3.6m, 폭 2.85m, 두께 0.9m의 거북 모양을 한 화강암석이 덮여 있어, 그 밑이 문무대왕의 유해가 봉안된 납골처로 여겨진다는 곳. 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기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대왕암, 대왕암으로 불리워졌다더니, 이제사 내가 비로소 그 앞에서 있는 것인가.

태종무열왕의 뒤를 이어 21년간 신라를 통치한 30대 문무왕은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뒤, 당의 세력까지 축출하여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했다. 그 후에도 왜구들의 침입이 잦은 것을 늘 염려했는데, 숨을 거두면서 '내가 죽거든 동해에 묻으라. 그리하면 용이 되어 왜구를 막으리라.' 했다고 한다. 그 유언에 따라 아들인 신문왕이 유해를 화장하여 바닷속에 매장하였다고 전하는데, 그곳이 바로 근처에 있는 감은사에서 발굴된 사지(寺誌)에 의해 확인이 된 해중왕릉이었다.

경주의 관문인 용암포 언덕에 세워진 감은사 역시 호국사찰로 문무왕과 관련된 유적지이지만, 신라의 대표적인 궁원(宮苑)으로 손꼽히는 안압지 역시 그분의 풍모를 드러내고 남는 곳이다. 안압지는 삼국통일을 이루고 나서 축조된 것으로, 큰 연못을 파고 못 가운데 삼신산(三神山)과 무녀십이봉(巫女十二峰)을 상징하는 3개의 섬과 12봉우리를 만들었으며, 거기에 갖가지 꽃과 나무를 심고 진귀한 동물을 길렀다고 전



해진다. 못가에 세워진 임해전(臨海殿)과 여러 부속 건물들은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東宮)으로 쓰기도 하고,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풀기도 했던 곳이다.

생존시에 것처럼 큰 업적을 이룩하며 풍류를 즐기기도 했던 대왕이 사후에는 또 나라를 걱정하는 지극한 마음에 용이 되어 동해를 지키리라 했더니, 내게는 그것이 더는 할 수 없는 희생의 자세로 받아들여져 가슴이 몽클해 왔다. 그 당시의 왕이라면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가질 수 있는, 때로는 죽은 뒤의 영화를 기려 백성의 목숨이라도 강요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음이 아닌가.

그런 단 한 사람이, 정녕 눈들리지 않아도 좋을 민초(民草)들의 평안한 잠자리를 위해 자기 영혼

의 평안함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것. 그것은 가히, 미륵이 출현하여 성도(成道)에 이르기까지 부처가 없는 세계에 머물며, 마지막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교화하겠다는 뜻을 품었던 지장보살에 버금가는 자비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무릇 대부분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의 안식일진대, 그분은 그것을—그것도 미천한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 내주며 죽어서도 깨어 있기를 원했으니, 인간으로서 가장 간절한 바람을 포기한 것이 되리라. 문무왕의 그런 면모를 헤아리며 서 있는 동안, 파도 소리는 어느새 그분의 우렁찬 음성이 되어 가슴을 흔들고 있었다.

그 후 동료교사들과의 여행길에 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전해져 오는 감동은 마찬가지로

였다. 그리고나서 지난 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아이를 데리고 다시 금 찾아가니 감회가 새로웠다. 토요일 오후에 내려가 감포에서 자고는 다음날 아침 대본으로 나왔는데, 대왕암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있는 이견대(利見臺)에서, 감은사를 완성한 신문왕이 동해에서 얻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적을 물리쳤다는 만파식적(萬波息笛)의 전설을 되살리고는 비탈길을 내려와 모래사장 쪽으로 가려 할 때였다.

민물이 바다로 흘러들며 생겨난 도랑을 뛰어 넘다가 내 발목이 약간 삐끗했다. 그대로 주저앉고서 보니, 양지바른 쪽에 파릇파릇한 풀이 돌아나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바닥에 눕다시피한 줄기 끝에서 작고 푸른 꽃들까지 울망줄망 피어 있었는데, 그 꽃이 바로 이름때문에 항상 안쓰러워했던 개불알풀꽃이었다.

꽃이 지고 난 뒤에 생기는 열매의 모양이 개불알을 닮아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걸 알고 나서도 그 느낌은 내내 가시질 않았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마주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다. 놀라운 건, 그 때까지만 해도 그대로 남아있던 그 꽃에 대한 안쓰러움이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 위용당당하게 서 있는 대왕암을 대하는 순간 확 거두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 바위에 날아앉기도 하고 위를 떠돌기도 하는 갈매기떼와 더불어, 그 바닷가 기

슁에 피어 있는 개불알풀꽃이 대왕이 죽어서도 돌보고자 했던 무지렁이 백성들로 여겨져, 그 이름이 썩 잘 어울린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었다.

‘너희는 정녕 내세의 안식을 버리면서까지 민초들에게 편안한 현세를 주고자 했던 대왕의 은혜에 힘입어,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 늦겨울날 그리 정겨운 모양새로 피어날 수가 있었더냐.’

하나,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은 예전에 그곳을 찾았을 때와는 영 달랐다. 여기저기 눈에 띄는 휴지며 빈 깡통과 술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날이 방생하기에 좋은 날이었는지 군데군데 모여 선 여자들이 보이는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손으로 바람을 막아가며 모래에 박은 초에 애써 불을 붙이고, 앞에 놓은 상 위에 바나나며 수박이며 밤, 대추 등을 차려놓고 대왕암을 향해 목탁 소리에 맞추어 몇 번이고 절을 하는 것은 좋았다.

그리고 나서는, 커다란 물통에 담아온 새끼 자라를 꺼내서 밀려왔던 파도가 다시 밀려갈 때 그 물결에 실어 떠나 보내는 것까지도 관참았다. 한데, 정성을 다한 그 의식이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난 뒤에 그녀들이 보이는 태도는 좁전의 분위기와는 판이했다.

언제 내가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도 경건한 자세를 지녔었는가

싶게, 타다만 초는 그대로 모래 속에 묻어 둔 채였고 벌려진 쓰레기는 바람에 날리던 데굴데굴 구르든 아랑곳이 없었다.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느 원로 다이머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다. 부인이 방생하는 것을 찍으려고 물 속에 들어가 있어 보니, 거기까지 실려오느라 기진한 새끼 자라들이 물에 밀려 갔다가는 인간힘을 써서 밖으로 나와 숨을 쉬려고 하면 또 갓다 집어넣고 하는 바람에, 방생이 끝나고 나자 허영계 배를 뒤집고 죽은 자라의 시체만 물 밑에 즐비하더라고.

거기에 덧붙여 강하게 고개를 드는 것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내세의 복까지도 내준 문무대왕의 혼이 서린 이곳에 와서 저들은 자기 현세의 복을 빌고만 가는가 하는 회의였다. 그리고 그건, 굳이 자라를 방생하지 않은 내게 있어서도 똑같이 자리한 욕심이었다.

‘대왕이시여, 이리도 우매한, 당신이 통치했던 신라에서 한참이나 흘러온 시대의 이 백성들을 그래도 당신은 끝까지 거두시겠나이까.’

갈매기가 내려앉은 바위섬과 밀려오는 하얀 파도와 그 앞의 자갈밭을 찍겠다고 모래사장에 엎드려 있는 아이에게, 그 날따라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의 마음이 짐과 다스림을 받는 자의 마음이 짐을 진지하게 일러주고 싶었다.